

# 베스트셀러, 독자신뢰 얻는 데서 가치 찾아야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계방식 개발, 전문기구 설치 필요



글\_ 김선남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사회에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가을보다는 여름이나 겨울에 책을 더 많이 읽는다. 책 읽는 문화가 축소되면서 독자들이 '베스트셀러'에 집중하는 새로운 경향도 나타났다. 주요 독서계층인 여성, 20대, 지식인 등을 보면, 이들은 가격에 관계없이 베스트셀러를 구입하고 또 이것이 감동과 재미를 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다.

베스트셀러는 사회를 따라잡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흥행의 보증수표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스트셀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베스트셀러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접근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사재기 사건이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하자 일부 출판사는 사재기를 통하여 자사의 책을 베스트셀러에 진입시켰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출판업자들이 사재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왜 출판계의 사재기 열풍이 수그러들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베스트셀러 집계방식의 왜곡이 가장 큰 이유다. 우리는 베스트셀러를 판매부수에 입각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형서점이 제공한 도서관매 데이터에서 답에 해당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결정된다. 이러한 베스트셀러 결정방식은 극히 획일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서점 의존도가 매우 크다. 우리와는 달리 외국은 보다 종합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다. 미국의〈뉴욕

타임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도서관매량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집계 과정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베스트셀러는 판매량 이외에도 다양하고 중요한 문화적 요소들이 기준이 된다. 외국에서 활용하는 이러한 베스트셀러 결정 방식은 양만으로 결정하는 획일화된 베스트셀러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가치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베스트셀러는 다른 책의 대체 구매 유발은 물론 새로운 구매를 창출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는 독서 인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베스트셀러는 독서인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상당수 사람들은 베스트셀러를 읽지 않으면 왠지 세상에 뒤처지는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일부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의존하여 책을 사기도 하고 베스트셀러가 양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출판업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베스트셀러 집계방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병행해서 양서를 읽는 사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독서교육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베스트셀러는 독자의 신뢰를 얻는 데에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 베스트셀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업계 및 학계는 베스트셀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독서인구 확대의 지표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